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밀알&세계

01

2018 | Vol.305

MILAL & WORLD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한다

2017년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된 장애인 학교를 거부하는 지역주민들의 NIMBY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으며 살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니며 보통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장애인에 대한 거부는 바로 이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인권이라는 말로 주장되는 많은 요구들에 대해 세상은 때로 수긍하거나 때로 제한하면서 나름의 합의지점들을 찾아 왔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인권인 것인지 사실 정해진 하나의 답은 없는 것 같다. 그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합의와 물질적 성장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인권은 매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인류의 긴 역사를 통틀어 인권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것만은 분명하다.

장애인의 인권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 장애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다. 또 1975년 12월 UN 장애인 권리선언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애인도 인간의 권리를

지닌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었다. 이는 2008년 12월 ‘UN 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성과로 이어진다. 이 과정 자체만 보더라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어떻게 진화되어 갔는가를 알 수 있다. 2008년 권리협약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국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점차 높아가는 덕분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생각은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한국의 장애인들은 건강권, 거주 이주권, 정보 접근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보육권, 문화 향유권, 선거권 등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실질적 차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 운동은 아직도 치열하게 더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실현해 나가는 전략은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의 수립이다. 장애인 복지제도가 장애인의 인권을 실현해 가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궁극적 도달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으로의 귀결이다.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의 권리는 당연히 장애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주장하는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면 아직은 민주주의와 인권적 성장이 저급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를 논하는 데 있어 복지의 기능적 필요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장애인복지법에 이어 한국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장애인 인권사상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고 실현되는지 아직도 우리가 지켜보며 쉽 없이 이뤄가야 할 과제다. 행복을 추구하고 평등을 누려야 하는 장애인의 기본권 역시도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

글 | 이재서 목사 (세계밀알연합 총재, 흥신대 교수)



표지사진: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밤 어둠을 사르며 찬연히 솟아오르는 저 태양처럼, 전세계 장애인들을 향한 ‘전도, 봉사, 계몽’이라는 우리 밀알의 이상과 비전도 한층 더 강화되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차례

- 02. 칼럼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한다
- 04. 새해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07. 밀알과 함께
Milal Experience
- 08. 최명자 사모초청 순회찬양집회
영롱한 음률,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
- 10. 따스한 연말
아틀랜타밀알 가족송년예배
- 12. 감사의 시간
뉴저지밀알 추수감사절 디너
- 14. 행사리포트
제32회 사랑의축제
- 16.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곳, 밀알

밀알&세계

뉴욕 • 코네티컷 • 뉴저지 • 필라델피아 • 캐나다 통합판

통권 제304호 | 2017년 12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강원호, 정택경

지역별 구독문의

뉴욕: 718-445-4442 | 코네티컷: 203-733-0156
뉴저지: 201-530-0355 | 필라델피아: 267-475-8637
캐나다: 416-491-0002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뉴욕밀알 김자송 단장

2017년이 저물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2018년에도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 친구들을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더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여러분과 함께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뉴욕밀알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2018년 여러분께 주님의 참 사랑과 은총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캐나다밀알 김신기 단장

한 해가 가도 새 해가 와도 덤덤하다면 나이 탓인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새 힘이 필요한 것 인가요. 이게 어찌 저만의 일일까요? 지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밀알의 온 가족들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키시고 복주시고 평강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밀알은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 밀알은 하나 그리고 세계로!



뉴저지밀알 강원호 단장

23년 동안 뉴저지밀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교회와 단체 그리고 후원자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밀알 장애인 꿈터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이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주와 세계 1000 곳 이상에 밀알 운동이 확산되는 장소가 되길 기도합니다.



워싱턴밀알 정택정 단장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017년도 못다 한 일을 2018년 새해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1월 하순에 미주밀알 단장회의가 있고 8월 초순에는 미주밀알 지도자학교가 열립니다. 밀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들이 함께 뛰는 2018년 새해가 되어 밀알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라델피아밀알 이재철 단장

사랑을 목말라 하는 세상입니다. 과거보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졌음에도 사람들은 오늘도 외로움을 타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바로 <밀알>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밀알'은 모이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밀알'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팀만큼 강하지도, 견고하지도, 위대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가꾸어주신 분이 당신입니다. 새해에 주님의 크신 은혜 누리시고, 변함없는 사랑 기대합니다.



살트밀알 이승민 지소장

지난 한 해, 많은 분들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버린 것 같았던 살트밀알이 어느새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섬세한 손길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경험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기도해주시고, 동역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과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 밤으세요

은혜로 충만한 한 해 되길 축복하며, 2018년도에는 받은 사랑을 더 낮은 곳에서 나누는 살로밋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리치몬드밀알 서바울 지소장

리치몬드밀알 지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마음을 열고 기뻐하는 봉사자분들과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감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지는 해를 바라보지 말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봉사자들과 장애인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욱 추구하고 경험하며 신앙이 성장하는 한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2018년에는 우리 리치몬드밀알도 밀알의밤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애틀랜타밀알 최재휴 단장

희망찬 2018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애인 사역에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밀알이사님들과 애틀랜타 지역 교회들, 후원자님들 그리고 밀알가족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선포한 것처럼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밀알 가족들 또한 분명한 신앙고백으로 담대하게 2018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카고밀알 남성우 단장

2017년을 되돌아보며 시카고밀알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표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많은 후원자들과 교회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이유야 많습니다. 사랑의교실에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랑의캠프에 처음으로 4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경비가 필요했는데, 사용하고 남은 정도로 많은 후원이 있었습니다. 또 모 교회에서 거금을 후원해주어 복지관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시카고밀알은 하나님과 후원자님들의 사랑만 믿고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남가주밀알 이종희 단장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한 알의 밀알로 열심히 썩어져가고 있는 지금의 밀알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썩어진 밀알을 축복하셔서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로 맺혀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걸음 한걸음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나아가는 밀알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가주밀알 김정기 단장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에 후회의 그늘이 없는 삶으로 생명의 진수를 느끼며 살아가는 새 날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의 빠르기를 느끼기보다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밀알가족들과 함께 우리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새 기쁨이 채워지기를 기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새 기쁨이 채워지기를 기





도합니다. 사랑하는 밀알가족 여러분! 복 된 새해 되세요! 더욱 더!



시애틀밀알 장영준 단장

밀알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밀알의 가장 큰 힘은 약함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그 때에 우리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 밀알에서는 인간의 가장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하심이 강조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밴쿠버밀알 이상현 단장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정현중, 방문객).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이런 무게와 이런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만남은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 있고,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밀알을 통하여 이런 소중한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이루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신 그리고 함께 해주실 모든 분들께 밴쿠버밀알가족들과 함께 감사와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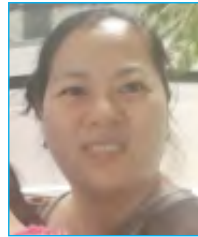
텍사스밀알 이재근 단장

장애인 운명공동체가 밀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한해를 시작하네요. 2018년에도 밀알선교사역이 세계 곳곳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브라질밀알 최은성 단장

2017년은 브라질 한인사회의 혹독한 침체기였습니다. 개개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도 밀알의 사역과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과 도움을 인도하여 매번마다 감사로 끝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밀알 친구들은 더더욱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18년에도 혹독한 시련이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분만 바라보며 소망과 기대를 붙잡고 한해를 시작합니다.



파라과이밀알 강미숙 단장

2017년을 마무리하며 세계 곳곳에 심겨진 모든 밀알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크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밀알 가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어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밀알의 가족 되시기를 또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르헨티나밀알 이주희 단장

2018년 새해를 맞아 미주밀알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올 1월8일부터 2월3일까지 아르헨티나 북부 미시오네스주에서 장애아동들과 여성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이 여성학교로 장애인 선교를 알리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인들에게 밀알 사역을 홍보하며 현지인 교회들의 협조를 받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아르헨티나밀알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밀알과 함께

Milal Experience

In tenth grade as I began my weekly commute to an unfamiliar program a good 40 minutes away from the comfort of my bed, Milal was not exactly the place I thought I'd find myself to be on Saturday mornings. At the suggestion of a friend who had already been volunteering at Milal for some time, my brother and I decided to tag along in hopes of obtaining some volunteer experience, not very sure of what or even who to expect.

Upon my first encounter with the members of Milal, let me just say, I was frazzled. Screaming kids running about, volunteers in hot pursuit to maintain some control over them, and the feeling that I had no idea what I was doing. But as the weeks passed, I grew accustomed to the greetings of not only the widely grinning kids but also fellow volunteers who would become my good friends in the ensuing years, and I decided to see what God had to offer through this new development.

In a way that I had not even begun to understand until recently, Milal became a sort of safe place for me - one packed away from the outside stress and difficulties of keeping up with everyday academic and even social struggles. Caught up in the world of fascination the kids immersed themselves in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I couldn't help but develop an attachment to these wild little ones. During art time, music class, game sessions, and worship, it was amazing to see the children grow and discover their own hidden talents, passions, hearts for God, and the wonder of friendship.

The bonds they made with each other and their acts of fondness through the little things including

sharing legos (after initially being reprimanded for hoarding them of course), exchanging drawings dedicated to one another, and cheering each other on during games - well, it's not something you see very often. To come to a place with minds so curious and hearts so warm, I haven't been able to leave since.



Needless to say, it's a refreshing feeling to interact with children so energetic and full of the innocence you'd expect to see in all kids. Their unique qualities and differences only highlighting more reasons to love and learn from them, I'm constantly reminded of important humanizing characteristics that many of us in society forget about. As a senior now, I can say with certainty that among the most impactful and influential experiences I've had so far in my young life, there hasn't been any like my time at Milal. This is quite the movement unfolding here, and I'm glad I can say that I'm part of the Milal family to witness as well as further it. 🌟

글 | Rachel Chung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 최명자 사모초청 순회찬양집회

영롱한 음률,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

1970년대에는 복음성가가 없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살며시 고개 드는 새싹처럼 단순하고 역동적인 색깔의 찬양이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예수이름으로' 교회 청년부에서는 그 찬양을 부르며 믿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붓물 터지듯이 복음성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예수전도단>이 한국에 상륙하면서부터일 겁니다. 그리고 80년대 초반 <국동방송복음성가경연대회>가 시작되며 다양한 콘셉트의 찬양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1세대 한국복음성가에는 '최명자 찬양사역자'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녀가 몸담았던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수련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열창함으로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붙인 대곡입니다. “물가에서 물이 졸졸 흘러가면서 4천명 되는 대학생들이 ‘반짝반짝’ 거리는 눈망울로 말씀을 들었어요. 찬양을 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 제 마음을 울려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릿저릿’ 해요. 민족 복음화에 대한 환상이나 이 민족이 있어서 내가 산다는 생각은 안 해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을 타고 이렇게 동참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 있다는 사실이 감격적이지요.”

사모님의 미소는 싱그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또한 청아합니다. '성악 전공생, 굿라이프 찬양단의 싱어, 복음성가 대상 수상자, 찬양사역자,' 현재는 선교사의 아내이자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최명자 사모 앞에 붙는 이력은 참 많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찬양사역은 그녀의 평생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학교 때 CCC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기만 한 보석이 아니라 절 다듬어서 진짜 아름다운 보석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셨어요.”

최명자 사모는 굿라이프로 찬양팀에서 사역했던 시절, 일

화를 꺼내며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냉장고만한 스피커와 각종 악기들을 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느냐?”라며 집회를 하기 전부터 떨떠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악기를 갖추고 찬양하던 팀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악기는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이니 주님이 주신 것들로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결국 몇 가지 악기만 가지고 눈물로 찬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통한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이제 곳곳에 성취되었습니다.

최명자 사모님은 이번 필라델피아에 와서 총 4번의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10일(금) '필라사랑의교회'(김성준 목사 시무) 공연을 시작으로 12일(주일)에는 '구세군교회'(박도성 사관 시무) 주일 예배에서 가슴을 적시는 찬양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14일(화) '밀알선교단' 모임 '화요 믿음의교실'에서는 피곤한 일정을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 장애인들을 위로하며 새 힘을 주었습니다. 15일(수) '첼튼햄장로교회'에서 마지막 집회를 인도하며 마지막을 장식한 찬양집회는 차가워진 기온을 녹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진짜 풍성한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진짜 풍성함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내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릴 때 진짜 삶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사모님이 남긴 멘트가 그녀의 영롱한 찬양과 함께 음파 되어 번져갑니다. ●

글 | 필라델피아밀알 편집부



■ 따스한 연말

애틀랜타밀알 가족송년예배

2017년 12월 10일 밀알센터에서 밀알가족 송년예배를 드렸다. 오미경 선생님과 노경열 권사님께서 밀알센터를 화려하게 장식해주셨다. 최대근 집사님의 찬양인도로 시작한 밀알가족 송년예배는 김태인 이사님의 대표기도와 이희양 이사장님의 환영인사로 순서가 이어졌다. 특별히 엘로힘중창단과 밀알 어머니들의 특별찬양은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이어 영광장로교회 담임이신 홍창우 목사님께서 '가장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주셨다.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적 관점에서는 많은 능력을 가진 자를 큰 자라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마치 어린아처럼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큰 자라는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



그리고 2017년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섬겨주신 최경희 집사, 손용현 미란, 애틀랜타새교회 그리고 영광장로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아울러, 남가주밀알 장학위원회와 애틀랜타 밀알 이사회 이름으로 이승혁 학생(시각장애인)과 장제임스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 깊은 시간도 함께 하였다.

특히 감사한 것은 여성골프협회와 임수민 변호사님께서 장애인 사역을 위하여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고 옐로힘중창단에서 초콜릿 박스와 영광장로교회에서 쌀 30포를 후원해주셨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김순영 장로님의 식사기도 후 조성은 사모님께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주신 선물추첨 시간으로 참석한 모든 가족에게 즐거움을 더

해 주셨다. 다시 한 번 2017년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애틀랜타 지역에 장애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글 | **하현지** (애틀랜타밀알, 놀크로스밀알 사랑의교실 담당간사)





■ 감사의 시간

뉴저지밀알 추수감사절 디너



제13회 밀알추수감사절디너 행사가 지난 11월 25일(토) 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 400여 명의 내외빈, 밀알 장애인,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저녁 6시30분에 시작된 행사는 9시가 되어서야 마쳤습니다. 토요일 늦은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참석해 주셔서 추수감사절 디너 행사를 빛내주었습니다.



1부 저녁식사 시간에는 뉴저지밀알에서 준비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참석한 모든 이들과 감사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사랑의교실 등 밀알선교단과 프로그램을 담은 영상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2부는 식순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유성중 이사장 기도, 밀알 장애인 차차차 댄스, 이지에 단원과 이원석 집사의 수화 찬양, 초청 강사인 리처드 박 장로의 간증, 뉴저지 남성목사합창단 찬양, 밀알 강원호



단장 인사, 래플 추첨, '사랑으로' 수화찬양, 운명호 목사의 축도가 있었습니다.

공성애 선생님의 지도로 공연한 밀알 장애인 차차차 춤 공연은 많은 이들의 박수소리와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이지애 단원과 이원석 집사) 후 사회를 봤던 엄이든 양이 대신 읽은 이지애 단원의 간증은 모인 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주 강사였던 리차드 박 장로님은 두 명의 자폐 아이를 둔 아버지로써, CITY MD라는 응급병원의 회장으로써 겪은 이야기를 감동적인 예화와 함께 담담하게 전해주었습니다. 특별히 강원호 단장님의 인사 후에는 수년 동안 뉴저지밀알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래플 상품 후원, 추수감사절디너 행사 후원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풍성한 감사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힘써 주신 뉴저지 밀알 단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밀알은 사랑입니다. 🍌



글 | 박성민 (뉴저지밀알, 간사)



■ 행사리포트

제32회 사랑의축제

지난 2017년 12월 2일(토),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남가주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2회 사랑의 축제'가 열렸다.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담임목사가 조직 위원장을 맡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8)'란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사역을 감당하는 22개의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700여명의 장애인 친구들,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해 은혜로운 예배와 맛있는 식사,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바쁜 사역일정과 계속되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랑의축제에 아낌 없는 후원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신 여러 교회와 단체, 봉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글 | 남가주밀알 편집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곳, 밀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에게 밀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때에 무작정 밀알을 찾아든 저에게 밀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저와는 매우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밀알 사랑의교실에 처음 갔던 날, 각자의 방식대로 크고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며 자유롭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그들 얼굴에 만면한 행복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느껴졌고, 서로 축복하는 그들의 찬양에 이곳에 사랑이 있음을, 바로 내 옆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누구도 서로를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은 저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자신을 사랑의 통로로 써달라는, 봉사자들의 울부짖음 후에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정말 진실한 사랑임을 저는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사랑을 주는데 그 배로 사랑받는다. 친구들 개개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진실한 사랑을, 저희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저는 그 어느 곳도 저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모든 것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스런 눈빛으로 언제나 바라보고 계심을, 간혀있던 저를 일으켜 주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귀하신 손으로 정성스레 빚어 지금 여기까지 이끄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를 있는 그대로, 빛으신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 모두를 그렇게 동일하게, 차고도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주님, 밀알 사랑의교실을 매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교실로 향하는 길음마다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저희 친구들, 봉사하러 오는 봉사자들, 점심 봉사를 와주시는 교회 분들과 도와주시는 모든 손길들, 모두 하나님만을 다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의교실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도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두의 마음 모아 오직 주님만 홀로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밀알로 이끌어 주심에, 매주 밀알에서 얼굴 보고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에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 알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밀알을 써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보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니, 그들의 상처 받은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밀알에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밀알을 통해 봉사자들도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 봉사자들 입술에서 봉사를 하고 사랑을 나누며 그들 자신이 치유되고 사랑받았다는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밴쿠버밀알이 그런 곳이길 원합니다. 밀알의밤을 통해, 〈함께 걸음콘서트〉를 통해, 〈밀알런〉을 통해, 난타교실을 통해, 그리고 사랑의교실을 통해 주님 알기를,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 받기를, 더 넓은 세상에 주님 좋으심을 알리기를, 다함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오직 주님만을 높혀 드리기를 원합니다. 밀알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기름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확신 할 수 있습니다. 밀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알 수 없는 평안과 행

복을 느끼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한 영혼이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영혼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개인에게 보여주신 비전에 활활 불타오르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를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밀알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그 많은 형용사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즐겼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글 | **최소라** (밴쿠버밀알, 봉사자)



뉴욕

뉴욕모자이크교회 창립기념식 참석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뉴욕밀알선교진료뉴욕

추수감사절 예배

11월 21일(화) 뉴하트선교교회(담임 정민철 목사)와 함께 추수감사절 화요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머핀을 만들어 오셨고, 성도님들이 음식을 갖고 오셔서 함께 친교를 했습니다. DBNY의 은혜로운 감사 찬양으로 한 해동안 뉴욕밀알과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생명샘교회 청지기 부부합창단 창단 연주회

12월 3일(주일) 생명샘교회에서 개최된 '청지기 부부합창단' 창단 연주회에 참석했습니다. 부부합창단원으로 활동하시는 각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교제의 시간을 갖고 뉴욕밀알을 소개했습니다. 단원 중 한 분은 "뉴욕밀알에서 펼치는 사역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지부 뮤지컬 초대

12월 4일(월) 민주평통 뉴욕지부는 뉴욕밀알 친구들을 뮤지컬, '아버지의 초상'에 초대했습니다. 뉴욕밀알의 10여명의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며 연말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평통은 뉴욕밀알을 이모저모 살펴주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평통 회장은 "뉴욕밀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기쁘다"며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친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MBA 원우회의 밤

12월 7일(목) 한국외대 EMBA 뉴욕총원우회는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원우회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뉴욕밀알선교단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원우회장은 "뉴욕밀알에서 펼치는 사역들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를 적은 물질로 지원하게 되서 감사한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뉴욕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참석

12월 10일(주일) 뉴욕윈드오케스트라는 퀸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뉴욕밀알 친구들을 특별 초대해 주었습니다. 일반 관람객이 객석을 꽉 채운 뜨거운 분위기 속에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화 공연을 통해 사회생활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사람 속에 섞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뉴욕우리교회 여성사역부 김치 후원

뉴욕우리교회 여전도회와 하나님의 성회 뉴욕신학대학원 동문회가 김치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우리교회는 후원과 기도로 언제나 뉴욕밀알을 챙겨주십니다. 지역의 작은 단체를 품어주시며 관심을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뉴욕우리교회 목사님과 성도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 뉴욕밀알 토요사랑의교실 성인반이 1월부터 뉴욕밀알오피스에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 2018년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 한 해 동안 뉴욕밀알을 위해 수고해 주실 모든 분들을 위해

뉴저지

방과후학교 TRIP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TRIP을 Bergen Mall 로 다녀왔습니다. 물건도 구입하고 맛있는 샌드위치와 아이스크림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 함께 했습니다.

화요모임: 감사 벽걸이 장식 만들기

밀알화요모임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오랜만에 한애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맛있는 식사뿐만 아니라 공작활동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화요모임에서 모처럼 하는 공작활동에 우리 밀알 친구들의 얼굴에 함박웃음 가득입니다. 추수감사의 절기에 맞춰 예쁜 나뭇잎을 직접 우

리 친구들이 그리고 오립니다. 오려진 나뭇잎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 한애리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테두리에 붙이니 멋진 감사 벽걸이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장식품을 액자 삼아 우리 친구들 사진도 찍었습니다.

화요예배 특별 손님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박숙희 선교사님(소속 커미션)께서 안식년 중에 잠깐 뉴저지밀알을 방문하셨습니다. 11월 28일 추수감사절 디너에 참석하시고 밀알과 교제를 나누시며 화요모임에서 선교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27세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방글라데시로 가셨고 오랫동안 방글라데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방글라데시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날 유럽에서 플루트를 공부하고 유럽밀알에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며 연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민희 자매께서 플루트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원석형제의 '하나님의 은혜' 노래와 함께 연주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밀알화요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영삼 사진작가 전시회

밀알을 사랑하여 10년 이상 밀알 프로그램의 모든 사진을 멋지게 찍어주고 있는 김영삼 사진작가께서 맨해튼에서 사진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2017년 11월 19일 밀알동산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유성종 장로님이 터키와 치킨을 준비해 주셨고, 강미경 사모는 처음으로 햄을 구웠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돌씩 각종 과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 감사를 표시하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올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특히 꿈터를 열어주시고 드디어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밀알이 새롭게 꿈터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과일 바구니 전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초대교회 유아부(강대열 목사)에서 어린 친구들이 과일 하나 하나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제목을 적어 감사예배를 드리고 과일바구니를 밀알에 가져오셨습니다. 밀알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 주신 초대교회 유아부에 감사드립니다.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로, 학생으로, 청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잘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터키보다 쌀이 좋아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후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매년마다 밀알에 터키를 후원해 주셨는데 올해는 터키 대신 쌀을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터키보다는 쌀이 더 인기가 있나 봅니다. 천하일미 15파운드 24장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최명자 사모 초청 순회 찬양집회(10일-15일)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해 온 '최명자 사모' 초청 순회찬양집회가 11일(금)-15일(수) 이어졌습니다. <감사 찬송>을 시작으로 '왜 날 사랑하나' '가서 제자 삼으라!'까지 주옥같은 히트곡을 지닌 '최명자 사모님'은 한국복음성가 1세대로 무려 39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0일(금) 오후 거주하는 시카고를 출발하여 '필라 공방'에 도착한 사모님은 특유의 소녀 미소로 한 주간 기쁨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을 사랑하며 '밀알선교단'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사모님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숨결을 전하며 큰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10일(금) '필라 사랑의교회'(김성준 목사 시무) 공연을 시작으로 12일(주일)에는 '구세군교회'(박도성 사관 시무)에서 주일 예배에서 가슴을 적시는 찬양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14일(화) '밀알선교단' 모임 '화요 믿음의 교실'에서는 피곤한 일정을 개척치 않고 최선을 다해 장애인들을 위로하며 새 힘을 주었습니다. 15일(수) '첼트햄장로교회'에서 마지막 집회를 인도하며 마지막을 장식한 찬양집회는

차가워진 기운을 녹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한편, 오전 11시에 개최된 '필라목사회' 정기총회 1부 예배에서 '특별찬양'으로 섬겨주어 많은 목사님들에게 참 위로와 목회의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정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집회를 인도하여 주신 '최명자 사모님'께 감사드리며, 집회를 열도록 배려해 주신 교회와 담임목사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단장 북가주 밀알의밤 주강사(4-5일)

단장 이재철 목사가님 영광스럽게도 <북가주 밀알의밤>(단장: 김정기 목사) 메인게스트로 초청받아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한 주간 전에는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를 방문하였으며, 직전 단장인 이영선 목사가님 사장으로 부임한 <미주복음방송>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간증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이 청취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11월 1일(수) 산호세로 날아간 단장님은 4일(토) '산호세한인장로교회'(담임: 박석현 목사)에서 열린 '밀알의밤'에 출연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를 열창하며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 하셨습니다. 5일(주일) '상향중앙장로교회'(권혁천 목사 시무)에서 이어진 두 번째 '밀알의밤'에서도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안기는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일 밤에는 '그레이트 파파스'(장애아동 아빠 중창단) 가족들과 둘러앉아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놓으며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장님은 11월 7일(화) 필라델피아로 복귀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미주밀알 총단장 회의(8일)

8일(수) 오후 5시, <워싱턴밀알선교단> 사무실에서 '미주밀알총단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금년 미주밀알 부총단장 직을 맡으신 '이재철 목사님', 기획국장인 '김정기 단장님'(북가주밀알), 그리고 총단장인 '정택정 목사님'(워싱턴밀알 단장)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금년과 2018년에 이어질 미주밀알 헌안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있을 <세계밀알지도자학교>와 2019년에 개최될 <밀알선교단 4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40주년을 맞이하는 밀알선교단이 항상 순수하게 장애인 선교에 매진하는 모습을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믿음의 교실 식사봉사(21일)

11월에도 '예수사랑교회' '김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화요 믿음의 교실> 장애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21일 '백남수 집사님'과 '김곤 목사님 사모님'께서 별식을 만들어 대접해 주셨습니다. '예수사랑교회' '김곤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은영 집사, 김문남 집사' 식사 봉사

4일(토) '박은영 집사님'께서 카레 밥과 과일로 섬겨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2년 전부터 꾸준히 우리 아이들의 식사와 간식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자 김예권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김문남 집사님' 내외께서 토요 사랑의교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밀알행사나 밀알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쁘게 헌신해 주시는 집사님 내외는 당일 아동들이 좋아하는 '치즈스테이크'를 손수 만드셔서 섬겨 주셨습니다. 김문남 집사님의 음식 솜씨에 우리 모두는 식도락을 즐기며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밀알 추수감사예배(21일)

<2017 밀알 추수감사예배>가 21일(화)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짧게는 지난 일 년 동안, 길게는 지난 세월동안 지키시고 밀알선교단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과일과 채소에 마음을 담아 강단을 장식하였습니다. 어느 해보다 풍성한 과실을 보며 모두의 마음도 풍성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단장 이재철 목사님은 <누가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먼저, 마음을 드러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부에는 단장님의 인도로 공동체 훈련을 가졌는데 '청백'팀 대항으로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청군이 승리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세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가 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순서를 마친 후 나눠주는 '과일보따리'를 무겁게 들고 교회를 나서는 단원들의 모습에서 감사절

지단별 소식

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단장 이재철 목사 '필라목사회 회장 선출'되다

14일(화) 오전 11시. 밀알선교센터에서 39회기 <필라목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1부 예배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예배소서 1:15-23절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목회자는 세 가지 눈이 밝아야 하는데 육안과 심안, 그리고 특별히 '영안'이 밝아 깊은 영적 통찰력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고 설교하였습니다. 2부 정기총회에 들어가 '이재철 목사님'이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목사회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토요 사랑의교실 디렉터가 바뀌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수고해오던 '임현정 전도사님'이 신분문제 해결과 학업을 위해 뉴욕에 있는 '퀸즈한인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어 부득이 1년 4개월 만에 밀알선교단을 떠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부군 '채경수 목사님'과 '예성 & 예나' 온 가족이 밀알사역에 동참하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후임으로는 '주양명 목사님'이 새해부터 토요 사랑의교실을 이끄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교실

<매주 화요일 PM. 7:30분-9:30분>

7일: 사랑의 가족대화 -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놓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4일: 최명자 사모 특별찬양 - 복음가수 최명자 사모님이 오셔서 영감 넘치는 찬양으로 장애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21일: 추수감사 특별 공동체훈련 - 하나님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훈련을 하였습니다.

28일: 수화찬양 - 12월에 있을 '몽고메리교회 작은 밀알의밤'에서 공연할 수화찬양 '회복시키소서!' 연습을 가졌습니다.

토요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AM. 10:00-PM. 4시>

10:30 환영/10:50 찬양과 예배/11:30 성경 읽기, 그림 그리기/12:00 점심식사 /1:00 야외 활동/2:00 영화 감상, 작품 활동/3:00 핸드벨 연습/4:00 정리 및 폐회

4일: 오전활동으로 저학년 그룹은 장난감 방에서 자유놀이 시간을 가졌고 고학년 이상 그룹들은 비즈패턴 만들기와 성경동화책 읽기를 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본당으로 올라가서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으로서 1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강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김소라 선생님'께서 종이 접기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였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하나씩 알려 주시니, 조금씩 모두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미르가 오랜 시간동안 앉아서 집중하고 끝까지 모빌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아이들도 조금씩 옆에서 도와주었을 때, 스스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완성해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 했던 것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김성식 이사님께서 아이들 한명씩 카이로프랙틱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11일: 오전 활동으로는 각자 흥미로워 하는 활동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재호는 성경동화책 받아 적기를 하였고, 주연이와 다미르는 컬러링, 진우는 지난주에 배웠던 종이접기를 해 보았으며, 성균이와 준서는 누나와 함께 장난감놀이를 하였고, 나머지 친구들은 비즈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어서 그런지 좋은 주의 집중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으로서 여리고성 함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가를 배워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여리고성 함락에 관련된 그림을 색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정소라 선생님께서 오셔서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이 접기는 펼쳐지는 꽃 접기였습니다. 소라 선생님께서 접는 과정을 단 순화 시켜 주시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모두들 수월하게 따라 할 수 있었고, 그 완성된 모

습이 참으로 화려하고 예뻐서 아이들의 성취감이 높여 주었습니다.

18일: 빗방울이 떨어지는 쌀쌀하고 껏은 날씨 속에서도 모두 변함없이 모여 기도와 함께 토요 사랑의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활동으로는 창의력과 집중력에 좋은 비즈 끼우기와 조각 블록으로 도형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본당으로 올라가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최선을 다해 온몸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말씀은 누가복음 17:15-16, 19 말씀으로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 배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내용들을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말씀 후에는 특별히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한지 한명 씩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craft 시간에는 추수감사절에 먹는 칠면조의 모양을 만들고 그 칠면조 깃털 위에 감사한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종이 접기를 한 후 '아이스 에이지: 대륙이동설' 영화를 보면서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였고, 그 동안에 한명씩 돌아가면서 Whiplash Clinic의 김성식 이사님께서 섬겨주시는 카이로프랙틱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2가지 국민체조로 운동을 한 후, 핸드벨 연습하는 시간을 가진 후 청소를 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25일: Thanks Giving Holiday 휴강

•식사봉사: 4일-'박은영 집사', 11일-'김문남 집사', 18일-자체, 25일-휴강

•토요 사랑의교실에 식사를 제공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15-913-3008

단장 사역 보고

<북가주 밀알의밤 메인게스트 출연> 4일(토): 산호세한인장로교회(박석현 목사) / 5일(주일): 상향중앙장로교회(권혁천 목사)

<설교> 8일(수): 미주밀알총단장회의 - 장소: 워싱턴밀알 / 12일(주일): 필라구세군교회(박도성 사관) / 15일(수): 헬튼햄장로교회(담임목사 공석)

<방문> 14일(화): 필라목사회 39차 총회 / 19일(주일): 예수사랑교회(김곤 목사) 축도 / 20일(월): 필라목사회 신임원회의 - 종가집 / 21일(화): KAPC 필라노회 체육대회 - 장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 26일(주일): NJ대한국교회(백행원 목사)

재정보고 2017년 11월

뉴욕

수입부: \$25,090.00

개인: \$3,030.00 \$20 Kil Do Yoo, Hee Sook Kong / \$40 Sun Hye Kim / \$50 Kyong C Burchan / \$100 Seop Song, Soon Kyu & Grace Shin, 무명, Young Chul Park, Young Shin / \$120 Maria Lee / \$180 Yoon Jung Lee / \$200 Jasong Kim & Byongin Choi, Samuel Choi, Soon Hee Lee / \$500 KI R Chung / \$1,000 Sun Hee Chung

교회/단체: \$10,120.00 \$20 Sky Cleaners / \$30 KS Nail / \$100 Salon Today, Myung Sung Church, New Hope Reformed Church(사랑의교실), The Siloam Reformed Church / \$200 Northern Pharmacy LLC, 참된예배자교회, One Heart Church of New York, Woori Church of New York / \$300 The Korean Church of Queens, The Korean 1st Presbyterian Church of NY, New Heart Mission Church, The Grace Daycare Center / \$400 Savior Presbyterian Church / \$700 Pick & Pack Produce Inc / \$1,000 Dashing Diva Franchise Corp, Korean Hope Evangelical Church / \$1,070 화요모임 / \$1,500 Tactile Brain LLC / \$2,000 IN2 CHURCH(김기범)

지정: 1,940.00 SSI

Grant: \$10,000.00 Asian American Federation

장소후원: 퀸즈한인교회 토요사랑의교실(어린이반) / 뉴욕장로교회 토요사랑의교실(성인반) / 퀸즈성결교회(조승수목사) 화요찬양예배

물품 및 음식후원: 권영준, 더큰집, 토요 Society, 월사모, 광승협, Long Island Mom, 하은희 낙원잔치집, 한마음 스시팀, 구주원꽃집, 총영사관 부인회, Kyle's Kimchi, Paldo

지출부: \$21,963.04

장애인복지: \$5,327.92 모기지 \$3,300.07 / 수리비 \$231.43 / Gas \$890.15 / 물값 \$305.90 / 소득비 \$50 / 비품구입비 \$206.77 / 정원 관리비 \$163.31 / Spectrum Cable \$180.29

사랑의교실: \$3,727.64 토요 사랑의교실 운영비 \$2,850 / 비품구입비 \$277.64 / 식사&간식비 \$600

선교비: \$2,946.49 직원인건비(2명) \$1,379.29 / 상회비(2017년 10월) \$432.20 / 밀알&세계 \$835 / 홍보비 \$300

전도봉사비: \$3,107.01 활동비 \$800 / 경조비 \$507.01 / 장애인보조 \$1,000 / 화요모임 \$800

사무비: \$5,001.77 직원인건비(2명) \$3,271 / 전기 \$289.49 / 세금 \$1,139.30 / 비품구입비 \$67.08 / 은행비 \$25 / Pres Award \$59.90 / Retirement Benefit \$150

차량유지비: \$1,852.21 모기지 \$488.68 / 보험 \$609.08 / 유지비 \$609.19 / 수리비 \$138.26 / Parking Fee \$7

전월이월금: -\$11,207.58 / 차월이월금: -\$8,080.62

밀알의밤 지출: \$2,075.00 사무실 렌트비

뉴저지

수입부: \$58,910.00

개인: \$4,590.00 \$10 Sugene April Kim, 고옥자, 광선희, 김현진, 서진호, 손주형, 이동수, 이충희&이미경, 조소형, 최윤경, 홍은실&이성운 / \$20 David Oh&Anna Oh, Young I Kim, 강동출, 박광민, 안영근, 윤태자, 이진규&박혜원 / \$30 Rok Hur, Tori Scott&Gary Scott / \$40 James Lee&Grace Lee, 서정순, 홍성혁 / \$50 김봉례, 엄이든&엄예든, 무명 / \$60 Seung C. Kang / \$100 Andrew Kim&Kyong Kim, 김경문 &김재순, 김동수, 김예은, 김일영, 박자영, 박찬호, 신용호, 윤미정&박종훈, 이윤아, 이상욱&이옥진, 이영택, 조복순, 최선호, 한원민, 무명 / \$150 박혁재&함지수 / \$200 이금자 / \$500 문영순, 박종훈 / \$1,000 임현애

교회: \$2,690.00 \$40 베다니연합감리교회 / \$100 시나브로교회, 시심나교회, 예수드림교회 / \$150 리버사이드교회 / \$200 뉴저지연합교회, 뉴저지침례교회, 뉴저지초대교회, 땅끝교회, 아가페장로교회 / \$300 뉴저지하베스트교회, 필그림교회 / \$600 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

단체: \$790.00 \$40 Young At Heart / \$50 Highwood Auto Service / \$100 Sky Auto Body LLC / \$300 Neighbor Plus Inc, 무명

지정후원금: \$3,950.00 <방과후학교 \$700: 김혜성, 오수잔, 최다솔> <사랑의집 \$800: 강건, 강원호> <방글라데시 \$1,750: 김미나, 박찬호, 베다니교회나오미전도회, 베다니이삭전도회, 송요찬, 채재동, 표용혜> <라이드 지정 \$200: 초롱> <화요모임 \$300: 무명> <크리스마스파티 \$200: Youngmi Kim>

장애인 콤팩트: \$130.00 \$30 채재동 / \$100 홍효선

추수감사디너: \$46,760.00 \$20 Eman Samar / \$100 Linda E Moon,

강건, 강한선, 공성애, 김수진, 김주은&정숙자, 김영희, 김예은, 미주제일 장로교회, 박명자, 박인선&양천모, 박정식, 박종훈, 오명숙, 이신구&이지은, 이종윤, 서정순, 조봉욱, 조성욱, 최다솔, 무명 / \$150 이경호 / \$160 박지혜 / \$200 David Kim, Gregory Nam&Mija Nam, 강원호, 김소윤, 뉴저지만나교회, 뉴저지청암교회, 솔뚜껍, 문윤경, 박재수&박인호, 분톤갈 보리장로교회, 새방주교회, 신지원&이상우, 유성중, 예수드림교회, 이경윤 &이명철, 이순중, 이용호, 이한창, 이화순, 인명희, 임미라, 조석진&이강희, 천홍규, 최다향, 추재욱, 쉼씨판촉물 / \$300 강덕원&강상훈, 뉴욕밀알 선교단 / \$400 Realty 7 LLC, 싸릿골, 아콜라연합감리교회, 하나약국, \$500 David C Kim&Tracy Lee, Surinder Sandhu, 그레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김봉례,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뉴저지성은장로교회, 뉴저지하베스트교회, 뉴저지행복한교회, 문서현&문요한, 박가희, 버겐카운티장로교회, 세이비어교회, 신승기, 오은희&오수잔, 훈민학당, 무명 / \$1,000 Chun Sop&Jung Bok Kim, 김요영&김철순, 김찬우, 사랑과진리교회, 이동수&곽선희, 조상현&조혜운, 찬양교회, 한무리교회, 황승희&황규진 / \$1,200 뉴저지제일한인교회 / \$1,500 필그림교회 / \$2,000 무명 / \$2,230 Raffle Tickets / \$3,000 Richard Park / \$5,000 Skyliner Travel&Tour, 김진수

지출부: \$49,425.61

사무관리비: \$4,504.70 간사인건비(3명) \$2,350 / 세금공과금 \$519.56 / 보험비 \$471.11 / 복사기리스 \$745.16 / 은행경비 \$66 / 전화비&인터넷 \$352.87

선교비: \$13,891.17 단장사례비 \$2,500 / 선교활동 \$467.04 / 자동차 관리 \$1,903.54 / 방과후학교 \$2,020 / 화요모임 \$1,357.93 / 밀알 &세계발송 \$520.13 / 본부사랑의교실 \$4,422.53 / 중부사랑의교실 \$700

복지비: \$3,964.95 사랑의집(모기지) \$2,685 / 사랑의집운영비 \$785.20 / 유틸리티 \$494.75

꿈터: \$9,647.38 이자(2명) \$3,630 / 변호사 \$500 / 유틸리티 \$482.23 / 보험 \$4,035.15 / 수리 \$1,000

추수감사디너: \$17,417.41 장소사용 \$2,500 / 인쇄비 \$2,570 / 강사비 \$1,000 / 감사패 \$360 / 영상제작 \$1,200 / 물품구입 \$427.30 / 준비비 \$430.10 / 음식 \$7,420 / 인건비 \$1,500

전월이월금: -\$47,559.16 | 차월이월금: -\$38,074.77

장소후원: Calvary UMC, 참빛교회, 찬양교회

음식후원: 초대교회, 필그림교회, 디미방, 아리랑왕만두, 은하수잔치집, The 12 Baskets

필라델피아

수입부: \$7,950.00

이사회비: \$300.00 \$100 이재철 / \$200 차형원

개인: \$980.00 \$20 고영선, 김진홍, 문재민, 박산, 손주환, 원종현, 유경자, 이경애, 정연희, 지영찬, 황인권 / \$40 임현정 / \$50 양찬모, 이광영 / \$100 김경하, 민경희, 이기복, 정문호, 하영숙 / \$300 김선미, 이재철, 무명 / \$500 박상설, 윤훈영, 전남진

교회: \$1,890.00 \$100 기쁨의교회, 사랑장로교회 / \$140 성약교회 / \$200 첼트햄장로교회, 필라사랑의교회 / \$350 남부뉴저지교회 / \$600 영생장로교회

단체: \$100.00 마디병원

특별 지정 현금: \$2,400.00 <\$100 예수사랑교회>, <\$200 첼트햄장로교회 이웃사랑(사랑의교실 식사)>, <제15회 밀알의밤 광고후원 \$500: 아름다운치과>, <최명자 사모 초청 찬양집회: \$300 구세군필라한인교회 / \$500 필라사랑의교회, 첼트햄장로교회>

지출부: \$10,681.67

선교비: \$4,416.03 장학금 \$300 / 상회비 \$250 / 본부사역 분담금 \$1,800 / 단장사례비 \$1,200 / 활동비 \$300 / 자동차 보험비 \$158.08 / 가스 및 심방경비 \$277.95 / EZ-Pass \$130

사무관리비: \$1,181.62 간사사례 \$600 / 통신비 \$117.45 / 인터넷 \$78.29 / 잉크구입 \$125.88 / 믿음의교실 \$100 / Renew \$60.00 / 사무비 \$100

건물 유지비: \$511.80 모기지 \$300 / 정수기 사용료 \$38.99 / 전기세 \$158.04 / 난방비 \$14.77

사랑의교실: \$1,000.00 사랑의교실 운영비 \$800 / 사랑의교실 교육비 \$200

미디어선교: \$1,072.22 밀알&세계 발송비 \$181.33 / 밀알&세계 인쇄비 \$835 / 우편 반송 \$7.14 / 우표구입 \$48.75

복지부: \$1,200.00 사택보조비

특별: \$1,100.00 최명자 사모 찬양집회 사례비 \$1,000 / 사랑의교실 식사 \$200

전월이월금: \$12,937.88 | 차월이월금: \$10,306.21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18번지 청보빌딩 301호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3925 Travilah Road, Rockville, MD 20850 / Tel: 301-294-6342 / Fax: 301-294-6195 / Email: milalusa@gmail.com

Milal Mission in New York 뉴욕밀알선교단 | www.nymilal.org

42-19 Bell Blvd., 2FL Bayside, NY 11361 / Tel: 718-662-8779 / Fax: 718-445-4887 / Email: nymilal@hotmail.com
Group Home: 142-44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 Tel: 718-445-4442 / Fax: 718-445-4887

화요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밀알사무실(Bayside)
무료 방과후 학교	매주 월~금	오후 3:00 ~ 6:00	밀알사무실(Bayside)
무료 토요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3:00	아동반: 퀸즈한인교회 베드로관 청소년반/성인반: 뉴욕장로교회
그룹홈 운영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정 형태의 생활공동체		Group Home
컴퓨터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1:00 ~ 3:00	Group Home
Cooking Class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오후 1:00	Group Home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월사모)	매월 첫 주 월요일	오후 6:00 ~ 9:00	
직업재활(교회청소)	성인대상, 교회 환경 미화		

Milal Mission in New Jersey 뉴저지밀알선교단 | www.mijumilal.org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 Tel: 201-530-355 / 201-843-8808 / Email: miju92@gmail.com

화요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30 ~ 9:00	참빛교회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분부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Calvary UMC	185 W. Madison Ave, Dumont, NJ 07628
중부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6:00	찬양교회	15 Ceder Grove Ln, Somerset, NJ 08873
방과후 학교	매주 월~금	오후 3:00 ~ 6:00	참빛교회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밀알예배	매주 주일	오전 11:00 ~ 오후 2:30	밀알 폼터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 | www.philamilal.org

423 Derstine Ave. Lansdale, PA 19446 / Tel: 215-913-3008 / Fax: 215-362-3940 / Email: philamilal@hotmail.com

화요모임 <민음의 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9:3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성인 장애인 및 단원들의 모임, 찬양, 예배, 수화 배우기, 수화 찬양, 컴퓨터 배우기, 악기 배우기 등			
사랑의 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4:0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발달 장애 아동 Day Care, 찬양, 예배, 교육, Trip 등			
밀알의소리 라디오 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11:30	필라 기독교방송국 AM 1590 Mhz

Milal Mission in Canada 캐나다밀알선교단

1183 Davenport Rd. Toronto, ON, M6H 2G7 / Tel&Fax: 416-491-0002 / milalcanada@hot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4:00	성산장로교회(지하교육관)	1300 Caledonia Rd. North York, ON, M6A 3B9
스텝미팅	매주 토요일	오후 5:00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 미주밀알선교단** 워싱턴 / 볼티모어 / 버지니아 / 리치몬드 / 샬럿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뉴저지(중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남가주LA / 남가주OC / 텍사스 / 하와이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유럽밀알선교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오스트리아 / 화란 / 영국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 한국밀알선교단** 강원 / 경기 / 고성.사천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김해 / 거제.통영 / 경남(진해) / 마창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파주 / 양산 / 경기광주
- 기타밀알선교단** 뉴질랜드 / 호주 / 러시아 브리야트 / 인도 / C국(A,B) / 태국 / 네팔 / 이집트 / 카자흐스탄